

To: Those on the Margins

Re: The Beauty of Vulnerability

3.12\_3.26 2026

From: Nahyun Kim

회신 : 취약함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 About the artist

김나현(Nahyun Kim, b.2002)은 도자, 드로잉, 회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정되지 않는 정체성과 존재의 조건에 주목한다. 특히 '취약함'을 단순한 결핍이 아닌 재생과 성장의 가능성으로 정의하며, 파편화 되고 왜곡된 형상을 통해 살아가는 힘과 변화의 과정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에서 도자예술과 서양화를 전공하였으며, 《이 작품을 주목한다(2024), 《삶, 흐름, 그리고 그 너머로》(2024), 《SWING BY》(2025) 등의 다수의 전시에 참여한바 있다.

2026년부터는 영국 Glasgow School of Art Contemporary Art Practice 과정에 입학할 예정이다.

그녀의 주요 관심사는 '취약함'이라는 감각과 경계가 혼재된 신체의 형상을 통해, 끊임없이 변형되고 이동하는 존재의 상태를 탐구하며, 완성이 아닌 계속해서 '되어가는(becoming)' 과정 자체를 지향한다.

### 김나현 (Nahyun Kim)

출생: 2002년, 서울, 대한민국  
거주 및 작업: 서울, 대한민국  
이메일: MINACHUNG02@NAVER.COM  
인스타그램: LIL\_EWHA

#### 학력

2025,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도자예술과 졸업  
2025,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2026, MLITT, CONTEMPORARY ART PRACTICE, GLASGOW SCHOOL OF ART 입학 예정)

#### 주요 단체전

2022 《덜다 : 減》,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023 《2023 EUMC FAIR 2023 별뿔》, EUMC 갤러리, 서울  
2023 《바다건너 카메라와 20인의 여행가들》, 갤러리 인사아트, 서울  
2023 《2023 MAYDAY EXHIBITION》,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024 《이 작품을 주목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024 《삶, 흐름, 그리고 그 너머로》,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025 《SWING BY》,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025 《SWING BY》, EUMC 갤러리, 서울

#### 수상 경력

2024, 이 작품을 주목한다, 지원금 수혜  
2024,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졸업전시 우수작품, 지원금 수혜



79, jahamun-ro, Jongno-gu, Seoul 03035, Korea

Instagram@hflux\_gallery



To: Those on the Margins

## Re: The Beauty of Vulnerability

3.12\_3.26 2026 

From: Nahyun Kim

회신 : 취약함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 Artist's Statement

나는 항상 주변부를 맴돌며 살아왔다. '주변부'는 단순한 사회적 위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상성의 규범에 완전히 합치되지 못하는 상태, 집단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신의 존재가 온전히 승인되지 못하는 감각에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감각 속에서, 나의 정체성,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보기 위해 수없이 애써 왔다.

지금 이 지점에서 말할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은, '끊임없는 변화' 그 자체, 그리고 '취약함'이다. 쉽게 변하고, 한 가지 상태에 머무르기 어렵고, 통제할 수 없는, 또 나약한 어떤 것. 그러나 나는 결코 취약함이 부정적인 특성이라 여기지 않는다. 변질되기 쉽다는 것은 다른 요소와 관계 맺기 쉽다는 뜻이다. 취약하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깨트리고 또 다른, 그 다음의, 다시 그 다음의 나를 찾아 나갈 수 있다. 취약함은 곧 계속되는 변화를 말하고, 그것은 결국 살아있다는 증거다.

도자는 변화와 취약함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매체다. 처음에는 무른 흙덩이에서 시작하지만 서서히 기물로 변모한다. 햇빛, 바람, 온도와 습도 같은 과정을 따라 기물은 건조된다. 초벌기에 유약을 바르는 것 또한 광물질 가루의 혼합으로 뒤덮는 것에 불과하나, 가마 속의 열기로 성질이 변화하여 유약을 입은 표면으로 완성된다. 완성된 도자기는 단단하지만 깨지기는 쉽다. 흙의 물성과 유약의 흐름, 가마의 열이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는 통제의 대상이라기보다 작업의 일부다. 드로잉과 회화에서는 우연히 남은 흔적 위에 다시 레이어를 더하며 화면을 구성한다. 이전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다음 사건과 겹쳐지고, 그 중첩 속에서 또 다른 형상이 발생한다.

나는 취약하고 변하기 쉬운 것들에 대해 말하고 싶다. 그것들은 고정적 정체성에서 추방되어 주변부를 맴도는 존재다. 그들은 늘 변화하고 또 다른 존재들과 만나 변화를 일으키기에 정형화된 형상으로 나타날 수 없다. 오히려 모호하고, 정체를 알 수 없고, 유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취약한 신체는 그 아래의 살덩이를 드러내며 껍질을 벗어 던지는 모습이다. 화면 속에서 자라나는 선들은 서로를 향해 뻗어 나가며 접속을 시도한다. 그 움직임은 관계 맺기의 과정이자 변화의 몸짓이다. 나는 그러한 형상을 마주하는 모든 이들이 취약함의 힘을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살아가며 겪는 사소한, 거대한 모든 경계에서 손을 내밀어 접속하기를. 그리고 변화하기를. 계속해서 그러한 과정 중에 살아 나가기를.



79, jahamun-ro, Jongno-gu, Seoul 03035, Korea

Instagram@hflux\_gallery



To: Those on the Margins

## Re: The Beauty of Vulnerability

3.12\_3.26 2026 

From: Nahyun Kim

회신 : 취약함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 Artist's Statement

I have always lived on the margins. For me, the 'margin' is not merely a position on the outer edges of society; it is a profound dissonance – a state of being where one cannot fully align with 'normalcy,' existing within a collective in which one's presence is never truly accepted. Within this state of liminality, unsettled and full of doubt, I have been striving to define my identity and sense of self. I have come to define my identity in terms of 'change' and 'vulnerability. To be vulnerable is to be in constant flux—to be uncontrollable, fragile, and resistant to permanence. Yet I do not perceive vulnerability to be a defect. On the contrary, to be susceptible to change is to be capable of human connection. It is precisely because I am vulnerable that I can discard my present self and seek out another —and another after that. Vulnerability is the pulse of transformation; it is the ultimate evidence that we are alive.

Ceramics serve as the most poignant medium to articulate this duality of change and fragility. What begins as a malleable lump of clay gradually transfigures into something with grace and beauty, brought to fruition through the benevolence of sunlight, wind, temperature, and humidity. The application of glaze—a mere layer of mineral dust—undergoes a radical chemical metamorphosis within the kiln's heat, emerging as a vitrified surface. The resulting ceramic is a paradox: it is solid yet has the potential to shatter. The unpredictable outcomes born from the synergy of clay, the strokes of glaze, and the intensity of fire are not elements to be subdued or downplayed, but are instead vital aspects of my artistic practice. When I work with drawings and paintings, I build compositions by layering new images over marks made accidentally. The past is never fully erased; it bleeds into subsequent events, giving rise to new forms through overlap and accumulation.

My work speaks for the mutable and the fragile – outcasts with no fixed identities left to wander the margins of society. Because they exist in a state of constant evolution, they cannot be confined to a single shape or silhouette. Instead, they manifest as ambiguous, indeterminate entities. They are like vulnerable creatures shedding their skins to reveal a new layer of flesh beneath. The lines proliferating across the canvas reach out towards one another, searching for 'points of contact.' This movement is both a process of forging relationships and proof of transformation. I want those who encounter these forms to comprehend the inherent power of vulnerability. I hope each person finds the courage to reach out from their own boundaries to connect, to understand, and to experience, perpetually, a beautiful process of transformation.



### About the artist

Nahyun Kim (b. 2002) is a Seoul-based artist whose work explores the fluidity of identity and the precarious conditions of existence. Through the use of ceramics, drawing, and painting, Kim redefines 'vulnerability' as a potent catalyst for regeneration, rather than a deficiency. In her fractured and distorted works of art, she manifests the primal, incessant process of metamorphosis.

Kim earned her BFA in Ceramics and Western Painting from Ewha Womans University. Her work has been featured in exhibitions including I Pay Attention to This Work (2024), Life, Flow, and Beyond (2024), and SWING BY (2025). In 2026, she will join the Contemporary Art Practice (CAP) program at the Glasgow School of Art (GSA) in the UK.

Moving forward, Kim seeks to deepen her experimentation with impermanent states of being, creating artworks where the boundaries between our internal and external worlds dissolve. Her practice is rooted in the concept of 'becoming'—a constant experience of alternation and transience—prioritizing the trajectory of the process over any fixed state of completion.



79, jahamun-ro, Jongno-gu, Seoul 03035, Korea

Instagram@hflux\_gallery